

예카테리나 라힐리나 교수, 블라디미르 플룬기안 교수 초청강연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와 러시아센터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와 공동 주최로 예카테리나 라힐리나 교수(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언어학과)와 블라디미르 플룬기안 교수(모스크바국립대학 이론응용언어학과)를 모시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총 3 일에 걸쳐 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1. 4월 6일(수요일) 16:00~18:30

특강 1: “Russian Learner CORPUS: Applications in Teaching and Linguistic Theory” (Pf. E. Rakhilina)

첫 번째 강연은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및 하버드, UCLA에서 구축하고 있는 러시아 학습자 코퍼스(RLC: Russian Learner Corpus) 프로젝트의 소개 및 그 이론적 고찰로 이루어졌다. RLC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학습자 및 러시아어 계승어 화자(heritage speaker)의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의 언어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코퍼스와 달리 RLC에는 외국인 학습자 또는 계승어 화자의 “오류”가 반영되어 있다. 라힐리나 교수는 이들의 오류, 특히 지속적이고 높은 빈도로 반복되는 오류를 살펴봄으로써 화자의 모국어(주요언어)와 러시아어(학습대상언어) 사이의 차별된 전략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러시아어 계승어 화자의 오류를 살펴보면, 예컨대 그들의 주요언어가 영어, 계승어가 러시아어인 경우 이 두 언어의 구문이 가지는 특성이 합성되어 하나의 구문을 이루는 예가 자주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영어의 구문적 특성이 러시아어 발화를 “간섭”하여 나타나는 오류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 의미에 기반하여 제 3의 새로운 구문이 사용되는 예도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단순히 “암기”하여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일련의 규칙을 통해 “생성”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때문에 이들이 생성하는 “오류”는 단순한 오류를 넘어서 계승어의 새로운 “체계(문법)”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특강 2: "Aspect Cross-Linguistically" (Pf. V. Plungian)

플룬간 교수는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 여러 언어에서 동사 상(aspect)이 갖는 의미를 재분류하였다. 상 연구의 대표적인 대상어가 되는 슬라브어의 경우, 상은 전통적으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이분법적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플룬간 교수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 대신 '1차적 상', '2차적 상', '상단(相團, aspectual cluster)'의 개념을 이용하여 슬라브어 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상의 의미를 재분류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때 상의 의미는 문법적으로 분류된 상 범주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문법범주로서의 상은 다의성을 지닌다. 예컨대, 슬라브어에서 불완료상이 지속이나 반복 등의 여러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이 지니는 이러한 다의성을 유형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플룬간 교수는 여러 언어에서 상이 표현하는 1차적이고 주요한 의미의 목록과, 이러한 1차적 상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2차적 상의 의미의 목록, 그리고 이 중에서 복수의 의미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상단적 의미의 목록을 제안하였다.

2. 4월 7일(목요일) 16:00~18:30

특강 3: "Slavic Aspect" (Pf. V. Plungian)

플룬간 교수는 첫째날의 세계 언어 전반적 상적 분포에 대한 특강에 이어 슬라브어의 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슬라브어 상 연구는 주로 그 의미 분석에서 시작하며, 완료상이 주로 '완결적(perfective)', '순간적(momentary)'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 분석에서 나아가 기존에 이분법적이라고 이해되던 슬라브어 상에 대해 리투아니아어의 -dav-형태나 북부 러시아어와 19세기 러시아의 사례 등을 통해 습관을 주로 나타내는 새로운 상이나 새로운 완료 또는 결과적 상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기존의 по-, на-와 같이 비어있는 동사 접두사로 여겨지던 것에 대해 이것은 написать의 경우에서와 같이 표면이라는 на-의 의미와 '쓰다'라는 의미의 писать의 결합으로 인해 의미가 비어있는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모든 동사 접두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스스로의 입장과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법 범주로서 상이 행위의 의도적인(telic) 성격을 표현하며 분류의 기능을 하는 문법 범주체계로서, 흔하지는 않지만 슬라브어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은 아님을 제시하였으며, 첫째날의 강연과 더불어 상적 요소(aspectual inventory)와 자질(value)의 보편성을 역설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특강 4: "Continuative Prohibitive: The Case of Russian" (Pf. E. Rakhilina)

라힐리나 교수는 본 강연에서 본인이 스스로 러시아어에서 찾아낸 새로운 구문 형태인 CONTINUATIVE PROHIBITIVE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멈추기를 요구하며, 새로운 행위의 도입을 야



기하는 기존의 금지 명령문과는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춘 구문으로 *постояй, пусть, подожди*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문에 사용되는 *постояй, пусть, подожди*와 같은 경우는 본래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적 기능이 탈색되어 *постояй*는 실제 서있으라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행위를 멈추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지만, 여전히 그 의미적 흔적이 남아있어 **Постояй, спи.*(*은 비문임을 나타낸다.)의 예에서와 같이 특정 의미의 동사들과 구문이 불가능함을 보인다.

이들 구문은 그 표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의미에 따라 특정 하위 범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가령 *прекрати, перестань*은 화자에게 불쾌한 행위의 정지를 요구할 때 사용되며, *хватит, довольно, достаточно*는 지나친 행위나 대상물의 존재시에 사용된다.

이러한 새로운 구문은 의미적으로 직시적(deictic)이다. 즉 새로운 구문의 한 예인 "*Остановись!*"에서 우리는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이동을 멈추라는 뜻을 이미 알고 있기에 *"*Остановись иди!*"와 같은 표현은 비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문의 동사가 본래 갖는 의미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를 원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 새로운 구문인 CONTINUATIVE PROHIBITIVE는 기존의 단순 금지문(simple prohibitive)이 일반적인 행위의 발생 자체를 금하는 것에 비해 실제 발생한 상황을 중단시키려는 의미적 차이를 가지며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상보적으로 사용되기에 새로운 구문이라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라힐리나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3. 4월 8일(금요일) 11:00~13:00

워크샵: 러시아 국립 코퍼스 구축과 코퍼스 연구(Pf. E. Rakhilina, Pf. V. Plungian)

라힐리나 교수와 플룬간 교수는 본 워크샵을 통해 일반적 코퍼스 언어학의 현황과 두 교수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국립 코퍼스(Russian National Corpus)에 대한 소개하고, 실질적인 사용 용례와 연구에 적용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코퍼스 언어학은 이른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의 형태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가까운 코퍼스 언어학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코퍼스는 텍스트나 담화 분석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론 언어학에 새로운 방법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또한 언어 교육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러시아 국립 코퍼스(<http://ruscorpora.ru>)는 2004년 시작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사용 가능한 코퍼스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다. 자료는 주로 18세기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으며 일부 고대와 중세 러시아어 자료를 갖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 국립 코퍼스는 주 코퍼스 이외에도 다른 언어와의 병행 코퍼스, 다언어 코퍼스, 방언 코퍼스, 통사 분석 코퍼스, 교수자료 코퍼스, 구어 코퍼스, 멀티미디어 코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코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퍼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 코퍼스는 자료의 저자정보, 장르, 유형, 기능적 요소, 주제 등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하는 기능과 형태적 의미적 분석 태깅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코퍼스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의 예시로서 두 교수는 흔히 집합수사(collective numeral)로 알려진 двое의 실제 사용이 규정 문법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규범문법에서 집합 수사는 남성 활성화(animate) 명사의 앞에 사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코퍼스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결과, двое가 ангел과 사용된 형태는 0%, капитан과 사용된 경우는 3%인 반면에 подросток과 사용된 형태는 32%, боевик과 사용된 경우는 55%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두 교수는 또 다른 사례로 구문 검색을 통해 на каждом(-ой)와 사용되는 구문 표현을 코퍼스에서 전수조사하면, 그 사용빈도가 유달리 높은 на каждом углу와 на каждом шагу의 경우 문법화가 많이 진행된 고정된 관용 표현이 되었음을 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연구소·러시아센터

Institute for Russian, East European & Eurasian Studies

РУССКИЙ ЦЕНТР ФОНДА РУССКИЙ МИР

